

영유아 부모의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 영향요인

조옥희¹, 황경혜^{2*}, 김미나³

¹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²수원과학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³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

Factors associated with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younger children's parents

Ok-Hee Cho¹, Kyung-Hye Hwang^{2*}, Mi-Na Kim³

¹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²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uwon Science College

³Epidemic Intelligence Service Officer,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 부모의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108명을 편의 표집하여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 e-헬스 리터러시,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대해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를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t-test, ANOVA, Scheffé test, 다중회귀 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각된 유용성과 정보활용도가 영유아 부모의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 부모의 특성과 유용성, 정보 활용도를 고려하여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활용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부모, 정보추구행동, 헬스 리터러시, 태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associated with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younger children's parents. The subjects included 108 parents with infants and children,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s about attitudes to internet health information, e-health literacy, and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Scheffé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s of the study, perceived usefulness and information utilization was founded to factors associated with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younger children's par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to provide health information and manage utilization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usefulness, and information utilization of infants and their parents.

Key Words : Parents,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Health literacy, Attitud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영유아 부모들은 자녀의 양육과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온라인 건강정보를 검색 및 이용하고 있다[1].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은 인터넷상에서

건강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를 의도적으로 찾거나 얻는 적극적인 과정과 행동으로[2] 영아 부모는 온라인상에서 예방접종, 이유식과 수유, 수면 문제, 건강에 관한 관심과 교육 방법에 대한 인터넷 건강정보를 탐색하며, 건강 발달 영역에 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3]. 부모들은 인터넷을 통해 활동적인 놀이나 수유 및 건강정보를 검색하며

*Corresponding Author : Kyung-Hye Hwang(hkh@ssc.ac.kr)

Received January 18, 2021

Accepted April 20, 2021

Revised February 15, 2021

Published April 28, 2021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추구한다[4]. 그리고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발달상의 문제나 인간관계, 사회·문화의 특성과 성 건강 등에 대해 인터넷 육아커뮤니티를 통해 건강정보를 공유하고 있다[5]. 어린이를 둔 부모들이 구글이나 위키 백과에서 온라인 건강정보를 찾거나 의사 상담을 위해 정보 또는 건강포털, 건강포럼을 검색하는 반면에 영유아 부모들은 자녀 건강정보에 대한 습득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6].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에게 인터넷 건강정보가 유용하다고 인지하는 경우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7]. 즉, 인터넷 사용을 많이 할수록 인터넷 건강정보를 신뢰할수록[8], 인터넷 건강정보의 접근과 사용이 쉬울수록[9] 건강정보를 더 추구하는 행동을 하였다.

인터넷 건강정보는 자기효능감과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데 사용되며[10], 건강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인으로 보고하였다[9],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으로 대상자의 건강행위나 의학적 상담의 빈도가 변화할 수 있고[11], 이렇게 얻은 건강정보는 건강 관련 행동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10]. 따라서 영유아 부모의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인터넷 건강정보의 지각된 유용성, 사용용이성, 정보 신뢰도와 정보 활용도의 영향을 확인하려면 올바른 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e-헬스 리터러시는 온라인 자원(electronic resources)에서 건강정보를 검색하여 찾고 이해하고 평가하여 습득한 지식으로 건강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하는데 적용하는 능력[12]을 의미하며, 인터넷 건강정보를 이용하여 건강상태와 위험요인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13]. 미국 플로리다 아동의료서비스 네트워크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부모 중 70% 이상은 건강정보 검색 방법을 알고는 있으나 절반 정도에서만 정보를 이용하여 건강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고 있었다[14]. 질환이 있는 환아 부모의 경우는 자녀 돌봄을 위한 건강정보 사용이 높음에도 정보를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가 커서 e-헬스 리터러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5]. e-헬스 리터러시는 대상자의 온라인 건강 관련 행동의 예측 변인으로서[16], 개인의 e-헬스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이용과 건강정보지향 정도가 높았다[16]. 그러나 웹기반 건강정보 자원이 많아도 부모의 e-헬스 리터러시가 낮았을 경우 건강정보에 접근하여 인식

하며 아동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격차가 있음을 보고하였다[15]. 또한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므로[10] 영유아 부모의 e-헬스 리터러시와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의 관계 모색을 통해 건강정보의 이용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영유아 부모의 인터넷 검색기술과 e-헬스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온라인 건강정보 추구행동이 높았고[17], 헬스 리터러시가 높은 부모의 경우 정보검색, 전략수립과 실천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18]. 그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나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건강정보를 추구하는 행동은 건강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19], 건강정보를 추구하는 의도에 따라 건강상태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20]. 따라서 e-헬스 리터러시가 낮은 부모들은 올바른 건강정보의 구별과 건강정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실제 아동의 건강관리 방향을 결정하고 의사소통하는데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데[15], 현대의 언택트 사회에서 최신의 근거가 되는 건강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이는 본인과 자녀의 건강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영유아 부모의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과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 e-헬스 리터러시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를 보면, 영아 부모의 인터넷 검색정보 또는 관심사[3], 유아 부모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과 건강관리 행동간 관계[21]를 파악한 연구가 있을 뿐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영유아 부모의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은 e-헬스 리터러시와 함께 자녀의 건강관리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의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는 추후 인터넷 건강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 부모의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첫째, 영유아 부모의 건강정보 이용 특성을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의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지각된 유용성, 사용용이성, 정보 신뢰도, 정보 활용도)와 e-헬스

리터러시가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영유아 부모의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 e-헬스 리터러시가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영유아 자녀(3세 이하)를 둔 부모로, 한국의 일개 지방 보건소를 방문한 부모를 편의표집하였다.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이고, 예측 영향 변인은 5개로 하였을 때 최소 92명이 요구되어, 탈락률(20%)을 고려하여 110명을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를 거부한 2명을 제외한 108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훈련된 연구원이 연구의 목적과 절차,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 누출이나 어떠한 해도 없음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으며,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설문지 응답 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2.3 연구 도구

2.3.1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는 Noh, Choi와 Kwon [9]이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 중 지각된 유용성(3문항), 지각된 사용용이성(3문항), 정보 신뢰도(3문항), 정보 활용도(3문항)의 4개 영역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0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9] Cronbach's alpha는 지각된 유용성 .82, 지각된 사용용이성 .78, 정보 신뢰도 .85, 정보 활용도 .75였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91, .92, .91이었다.

2.3.2 e-헬스 리터러시

e-헬스 리터러시는 Norman과 Skinner [22])가 개발

한 도구를 Park, Kwon과 Choi [16]가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8문항의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0점, 매우 그렇다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e-헬스 리터러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 등[1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였다.

2.3.3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은 Kim [2]이 개발하고 Noh 등[9]이 수정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3문항의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0점, 매우 그렇다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추구행동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Noh 등[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4였고, 본 연구에서는 .92였다.

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9.4 version)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 e-헬스 리터러시,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의 차이는 t-test, ANOVA, Scheffé test, Kruskal Wallis test로 분석하였다.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입력방식의 다중회귀분석으로 파악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Table 1과 같이,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3.7세(범위 21-45세)로, 35세 미만인 56.5%였고, 여자가 81.5%였다. 대상자 모두 배우자가 있었으며, 종교가 없는 경우가 62.0%, 대학교 졸업자가 75.0%였다. 대상자 중 직업이 없는 경우가 62.0%였고, 주관적인 경제 상태가 '보통'인 경우가 79.6%였다. 핵가족인 경우가 87.0%, 대가족인 경우가 13.0%였다. 대상자 중 55.5%가 2명의 자녀가 있었다.

3.2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 특성

Table 2와 같이, 대상자 중 46.3%가 영유아 자녀를 위해 주 1-2회 인터넷 건강정보를 이용한다고 하였고, 63.9%가 본인 또는 배우자를 위해 주 1회 미만 인터넷 건강정보를 이용한다고 하였다. 대상자 중 89.8%가 인터

넷 건강정보 검색을 위해 주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 후 일반 건강정보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69.4%가 만족하였고, 건강 관련 제품 구입정보에 대해서는 59.3%가 만족하였으며, 병원 선택을 위한 정보에 대해서는 59.3%가 만족하였다.

3.3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 e-헬스 리터러시,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 수준

Table 3과 같이,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의 하부영역 중 지각된 사용용이성 영역이 3.60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정보 활용도 3.41점, 지각된 유용성 3.35점, 정보 신뢰도 2.92점이었다. e-헬스 리터러시는 5점 만점에 평균 3.06점이었으며,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 정도는 평균 3.54점이었다.

3.4 일반적 특성과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 특성에 따른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

Table 1과 같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가족 형태 ($t=5.22, p<.001$), 건강정보 이용 특성 중 영유아 자녀를 위한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 빈도($F=3.62, p=.029$), 일반 건강정보 이용만족 여부($t=-3.35, p<.001$)에 따라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의 차이가 있었다. 즉 핵가족인 경우가 대가족인 경우보다 인터넷 건강정보를 추구행동 정도가 높았다.

Table 1.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08)

Characteristics	Total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n(%) or Mean±SD (range)	Mean±SD	t/F	p
Age (yrs)	33.7±4.7 (21-45)			
	<35	61 (56.5)	3.52±0.62	-0.19 .848
	≥35	47 (43.5)	3.57±0.62	
Gender				
	Male	20 (18.5)	3.60±0.65	0.48 .634
	Female	88 (81.5)	3.53±0.62	
Spouse	Yes	108 (100.0)		
Religion				
	Yes	41 (38.0)	3.57±0.62	-0.38 .706
	No	67 (62.0)	3.52±0.62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27 (25.0)	3.57±0.71	0.27 .789
	University graduate	81 (75.0)	3.53±0.59	
Occupation				
	Yes	41 (38.0)	3.64±0.56	-1.35 .181
	No	67 (62.0)	3.48±0.65	
Subjective	Moderate	86 (79.6)	3.55±0.62	-0.47 .641

economic status	Difficult	22 (20.4)	3.48±0.64	
Family type	Two-generation family	94 (87.0)	3.60±0.64	5.22 <.001
	Extended family	14 (13.0)	3.14±0.22	
Number of children	1	30 (27.8)	3.57±0.50	2.67 .074
	2	60 (55.5)	3.62±0.68	
	≥3	18 (16.7)	3.24±0.51	

NRS=Numeric Rating Scale (0-10)
* =multiple responses

Table 2와 같이, 대상자의 건강정보 이용 특성 중 영유아 자녀를 위해 주 1회 이상 인터넷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주 1회 미만 이용하는 경우보다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 정도가 높았다. 일반 건강정보 이용 후 만족한 대상자가 만족하지 않은 대상자보다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 정도가 높았다.

Table 2.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according to Internet Health Information Usage Characteristics (N=108)

Characteristics	Total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n(%) or Mean±SD (range)	Mean±SD	t/F/x ²	p
Internet health information usage frequency				
For infants and children	< once a week ^a	32 (29.6)	3.31±0.54	3.25 .043
	1-2 times a week ^b	50 (46.3)	3.62±0.69	a<b,c
	≥3 times a week ^c	26 (24.1)	3.67±0.51	
For myself	<once a week	69 (63.9)	3.56±0.66	0.36 .835*
	1-2 times a week	32 (29.6)	3.49±0.57	
	≥3 times a week	7 (6.5)	3.62±0.49	
For spouse	<once a week	69 (63.9)	3.56±0.64	0.10 .949*
	1-2 times a week	33 (30.6)	3.51±0.61	
	≥3 times a week	6 (5.5)	3.50±0.55	
Mainly used device	Desktop	7 (6.5)	3.24±0.92	3.70 .157*
	Smartphone	97 (89.8)	3.57±0.60	
	Tablet	4 (3.7)	3.25±0.32	
Satisfaction after using internet health information				
General health information	Satisfaction	75 (69.4)	3.67±0.60	-3.35 <.001
	Unsatisfactory	33 (30.6)	3.25±0.57	
About purchasing health-related products	Satisfaction	64 (59.3)	3.61±0.63	-1.52 .133
	Unsatisfactory	44 (40.7)	3.43±0.59	
Information for hospital selection	Satisfaction	64 (59.3)	3.61±0.62	-1.41 .162
	Unsatisfactory	44 (40.7)	3.44±0.61	

a, b, c: Scheffé test, * Kruskal Wallis test

Table 3. Level of Attitudes towards Internet Health Information, e-Health Literacy and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N=108)

Variables	Mean ± SD
Attitudes towards Internet Health Information	
Perceived usefulness	3.35 ± 0.68
Perceived easy of use	3.60 ± 0.72
Trust in health information	2.92 ± 0.60
Information utilization	3.41 ± 0.60
e-Health literacy	3.06 ± 0.59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3.54 ± 0.62

*All measure tool is consists of five-Likert scales(1=strong disagree, 5=strong agree)

3.5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 e-헬스 리터러시,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 간의 상관관계

Table 4와 같이,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 정도는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r=.67, p<.001$) 또는 e-헬스 리터러시($r=.40, p<.001$)와 정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4. Correlation among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Attitudes towards Internet Health Information and e-Health Literacy (N=108)

Variables	IHIB	AIHI	e-Health literacy
	r (p)	r (p)	r (p)
IHIB			
AIHI	.67 (<.001)		
e-Health literacy	.40 (<.001)	.52 (<.001)	

IHIB=Internet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AIHI=Attitudes towards Internet Health Information

3.6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와 같이,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가족형태,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 빈도, 일반건강정보 이용만족 여부를 통제한 후 입력방식으로 변수들을 투입하여 산출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였다 ($F=17.79, p<.001$).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55%였으며,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beta=.454, p<.001$)과 정보 활용도($\beta=.315, p<.011$)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Table 5. Factors associated with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N=108)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a			
	B	SE	β	t (p)
Intercept	3.145	1.082		2.91 (.005)
Attitudes towards Internet Health Information				
Perceived usefulness	0.412	0.079	.454	5.20 (<.001)
Perceived easy of use	0.050	0.064	.058	0.77 (.442)
Trust in health information	-0.040	0.088	-.038	-0.45 (.655)
Information utilization	0.327	0.083	.315	3.96 (<.001)
e-Health literacy	0.025	0.032	.064	0.79 (.430)
R ²			.55	
Adjusted R ²			.52	
F (p)			17.79	(<.001)

SE=Standard Error

^a=Control variables: family type, Internet health information usage frequency, satisfaction of general health information

4. 논의

본 연구는 영유아 부모의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 즉, 지각된 유용성, 사용용이성, 정보 신뢰도와 정보 활용도와 e-헬스 리터러시가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대상자 중 46.3%가 영유아 자녀를 위해 주 1-2회, 24.1%가 주 3회 이상으로 주 1회 이상 인터넷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는 70.4%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 부모가 육아 관련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 온라인 매체를 1일 평균 1시간 정도 사용하는 경우가 과반수인 결과보다[23] 높았고, 유아 부모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경우는 56.0%, 주 2-3회로 자녀의 건강정보를 인터넷에서 이용한 11.7%[21]보다 높았다. Min 등[23]의 연구는 0-3세의 자녀를 둔 부모가 67.3%인데 비해 본 연구의 대상은 87.0%가 3세 이하의 핵가족 부모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자녀 양육정보를 얻는 것보다 온라인 정보나 커뮤니티를 검색하면서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건강정보 이용 증 영유아 부모는 이유식, 돌봄, 건강 발달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3] 직업을 가진 경우 전업주부에 비해 자녀의 건강관리행동이 낮았고[21]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더 인터넷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중 직업을 가진 경우가 38.0%이고 절반 정도가 2명의 자녀가 있어, 실제적인 자녀 양육과 돌봄에 신경

쓰면서 필요한 육아정보만 추구하므로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시간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 중 89.8%가 인터넷 건강정보 검색을 위해 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일반 건강정보에 대해서는 69.4%, 건강 관련 제품 구입정보에 대해서는 59.3%, 병원 선택을 위한 정보에 대해서는 59.3%가 만족하였다. Kang, Lee와 Lee [24]의 연구에서 영아 부모의 72.2%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건강정보를 얻은 결과보다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경우 대상자의 대다수가 사용용이성과 편리성 높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건강정보를 검색한 데 따른 결과라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일반 건강정보에 비해 제품 구입정보, 병원 선택을 위한 정보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영아를 둔 어머니가 인터넷 건강정보를 이용 시 정보의 깊이와 유용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을 볼 때[25] 이용하는 건강정보 포털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거나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어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영유아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은 핵가족인 경우가 대가족인 경우보다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85% 이상으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육아 지원서비스나 인터넷 육아커뮤니티를 이용하여 공유하고 [5,26] 소통하거나 정보를 교류하면서[5] 가족 구성원이나 친척에게 구할 수 없는 정보를 충족하기 위해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 특성에 따른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은 영유아 부모가 영유아 자녀를 위해 주 1회 이상 인터넷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이 높았다. 부모들이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온라인 건강정보를 사용하는 경우는 의도적으로 건강정보 외에 부가적인 정보와 예견되는 위험을 고려하여 건강행위를 계획하기 위해 인터넷 건강정보를 추구한다[27]. Miller와 Bell [8]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 정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이 높았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였다. 90% 이상의 부모들이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대한 정보를 추구하고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건강정보의 유용성(availability)이었다는 결과를[28] 근거로 할 때, 영유아 부모가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해 인터넷 건강정보를 검색하고 실제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영유아 부모가 일반 건강정보 이용에 만

족한 경우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이 높았다. 이는 아동의 건강정보 이용이 가치 있다고 인지하는 스위스 부모들은 인터넷 건강정보 검색 빈도가 높았다고[29]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였다. 대상자들은 인터넷 건강정보의 인지된 가치와 신뢰도를 통해 건강정보를 추구하고 이는 인터넷 건강정보의 이용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20]. 건강정보를 이용할 때는 정보의 신뢰성, 최신 정보의 정기적 제공과 콘텐츠의 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23], 90% 이상의 부모들은 온라인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 회의적이며 이해가 잘되지 않아 소아과 의사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60% 이상임을 보고하였다[28]. 그러므로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 건강정보의 검색내용과 관리, 만족도에 대해 추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영유아 부모의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Noh, Choi, & Kwon [9]의 연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이 지속적인 인터넷 정보추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인터넷 건강정보는 본인과 가족, 지인의 건강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결정하고 의사와 상담하면서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10]. 스위스 영유아 부모들이 온라인으로 자녀의 건강과 발달에 대한 정보를 추구하고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정보의 유용성임을 제시하여[28] 본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영유아 부모는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인터넷 건강정보 웹사이트에서 유용한 건강정보를 얻고 실제 양육에 적용하여 도움을 받았을 때 지속적인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인터넷 건강정보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정보의 편중을 야기할 수 있다[19]. 따라서 인터넷 환경에 집중하기보다는 건강전문가와 의 양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건강정보 추구행동이 예방관리 활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영유아 부모의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정보 활용도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인터넷 건강정보를 이용자들이 질병과 건강에 대해 걱정하는 경우 온라인커뮤니티에 가입하여 특성과 정보를 찾고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는 상호작용과 생산활동을 활발하게 한다[29,30]. 부모들은 인터넷을 통해 얻은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의사에게 문의를 하거나 건강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

가 많았다고[25,28]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렇게 인터넷 건강정보를 활용해본 경험은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긍정적인 직접효과를 나타낸다는 선행연구 결과[31]에서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인터넷에는 일반적인 건강정보는 많으나 제공하는 정보가 피상적으로 구체적이지 못하고 정확성,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불확실하고 불안하다는 영아 부모의 의견도 있었다[25]. 건강정보 추구하고 인터넷 건강정보 활용경험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쳐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 점을[9,32] 근거로 검색된 건강정보를 실생활이나 의사와의 만남에 활용하면서 유용성을 인지하는 경험이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영유아 부모는 웹사이트를 통해 자녀의 양육과 발달에 대한 정보나 판단, 치료에 앞서 빠른 정보를 얻기 위해 건강정보를 찾고 공유하지만[23,25], 온라인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영유아 부모도 있었다[28]. 그러므로 영유아 부모가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육아에 필요한 건강정보를 검색하고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육아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것도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e-헬스 리터러시가 영유아 부모의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영유아 부모의 연령이 평균 33.7세의 인터넷 활용이 자유로운 디지털 세대로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건강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 및 이용하는 경우가 높은[19] 반면에 주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도 있어 e-헬스 리터러시가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영유아 부모의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영유아를 위한 인터넷 건강정보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구성과 활용할 연계 서비스체계를 구축 및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일개 지방의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모든 영유아 부모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지역의 디지털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점, 영유아 부모의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의 차이를 확인하지 못한 점,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정도를 고려하지 못한 점, 주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를 연구 대상에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영유아 부모의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이 자녀의 건강관리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추후 대상자의 수를 확대하고 건강관리행동의 변인을 포함하여 e-헬스 리터러시,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의 결과, 지각된 유용성과 정보 활용도가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핵가족인 경우, 영유아 자녀를 위해 주 1회 이상 인터넷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이 높았다.

본 연구를 통해 영유아 부모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정보 이용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기여하였고 영유아 부모가 인터넷을 통해 건강정보를 학습하고 방문하므로 의료진은 이를 고려하여 정확한 전문 건강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 부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해 유용한 웹사이트 소개와 건강정보의 활용을 관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건소나 외래에서 적용한 후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 평가 및 개선을 위해 영유아 부모의 인터넷 건강정보 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연구와 영유아 부모의 인터넷 건강정보의 활용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건강한 영유아뿐 아니라 질환이 있는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 e-헬스 리터러시와 건강정보 추구행동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H. M. Son, M. Je & Y. S. Sohn (2018). Quality evaluation of online health information related to young child.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4(1), 91-100.
DOI : 10.4094/chnr.2018.24.1.91
- [2] C. W. Kim (2007). *A study on health communication through internet—focused on cognition analysis of health information*.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 [3] J. M. Park (2016). *(The) internet childcare community*

- website for infants under the age of one—addressing the concern of parent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4] R. Laws, A. D. Walsh, K. D. Hesketh, K. L. Downing, K. Kuswara & K. J. Campbell (2019). Differences between mothers and fathers of young children in their use of the internet to support healthy family lifestyle behaviors: Cross-sectional study.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21(1), e11454. DOI : 10.2196/11454
- [5] M. J. Woo, H. J. Ahn & S. H. Noh (2016). Parental concerns regarding early childhood sex education on internet child-rearing commun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20(6), 385-405.
- [6] C. Sebelefsky, D. Karner, J. Void, F. Klein, P. Voitl, & A. Böck (2015). Internet health seeking behaviour of parents attending a general paediatric outpatient clinic : A cross-sectional observational study. *Journal of Telemedicine and Telecare*, 21(7), 400-407. DOI: 10.1177/ 1357633X15583431
- [7] M. N. Kim, Y. S. Yoo, K. H. Hwang & O. H. Cho (2019). The effects of office workers' attitudes to internet health information, e-health literacy on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and health-related behavioral inten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11), 357-367. DOI : 10.14400/JDC.2019.17.11.357
- [8] L. M. S. Miller & R. A. Bell (2012). Online health information seeking: The influence of age, information trustworthiness, and search challenge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24(3), 525-541. DOI: 10.1177/08982 64311428167
- [9] G. Y. Noh, J. Choi & M. S. Kwon (2013). A test 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on health information seeking on the internet.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 communication Studies*, 27(5), 49-85.
- [10] S. S. L. Tan & N. Goonawardene (2017).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eeking and the patient-physician relationship :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19(1), e9. DOI : 10.2196/jmir.5729.
- [11] F. Beck, J. B. Richard, V. Nguyen-Thanh, I. Montagni, I. Parizot & E. Renahy (2014). Use of the internet as a health information resource among French young adults: Results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16(5), e128, 1-18.
- [12] C. S. Norman & Skinner H. A. (2006). eHealth literacy: Essential skills for consumer health in a network world. *N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8(2), e9, 1-11.
- [13] R. J. Jacobs, J. Q. Lou, R. L. Ownby & I. A. Caballero (2016). Systematic review of ehealth interventions to improve health literacy. *Health Informatics Journal*, 22(2), 81-98. DOI: 10.1177/1460458214534092
- [14] C. Knapp, V. Madden, H. Wang, P. Sloyer & E. Shenkman (2011). Internet use and ehealth literacy of low-income parents whose children have special health care needs.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13(3), e75. DOI : 10.2196/jmir.1697.
- [15] N. A. Kasparian, N. Lieu, D. S. Winlaw, A. Cole, E. Kirk & G. F. Sholler (2017). eHealth literacy and preferences for health resources in parents of children with complex CHD. *Cardiology in the Young*, 27(4), 722-730. DOI : 10.1017/S1047951116001177.
- [16] D. J. Park, M. S. Kwon & J. Choi (2013). The influence of health information orientation, attitude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and e-health literacy on personal health behavior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17(3), 379-413.
- [17] F. C. Chang et al. (2015).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nd adolescent ehealth literacy and online health information seeking in Taiwan.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 -working*, 18(10), 618-624. DOI : 10.1089/cyber. 2015.0110.
- [18] J. M. Liechty, J. A. Saltzman, S. M. Musaad & The STRONG Kids Team (2015). Health literacy and parent attitudes about weight control for children. *Appetite*, 91(1), 200-208. DOI : 10.1016/j.appet.2015.04.010
- [19] W. Jacobs, A. O. Amuto & K. O. Jeon (2017). Health information seeking in the digital age : An analysis of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among US adults. *Cogent Social Sciences*, 3, 1302785. DOI : 10.1080/23311886.2017.1302785.
- [20] Z. Deng, S. Kiu & O. Hinz (2015). The health information seeking and usage behavior intention of Chinese consumers through mobile phones. *Information Technology & People*, 28(2), 405- 453. DOI 10.1108/ITP-03-2014-0053
- [21] B. H. Ahn & K. O. Park (2012). The associations between the mothers' internet information usage patterns and care-giving behaviors for their kindergarten-aged children.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38(2), 67-79.
- [22] C. D. Norman & H. A. Skinner. (2006). eHEALS: The ehealth literacy scale.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8(4), e27, 1-7.
- [23] J. Min, M. K. Kwon & J. Yun (2014). *An analysis on patients : using child caring information and measures to increase the availability*. Seoul :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24] N. M. Kamg, J. E. Lee & W. H. Lee (2013). Internet parent-infant health information, baby friendly hospital initiative website content and design. *Design Forum*, 40, 165-174.
- [25] A. C. van der Gugten, R. J. R. J. de Leeuw, T. J. M. Verheij, C. K. van der Ent & M. C. Kars (2016).

E-health and health care behaviour of parents of young children : A qualitative study. *Scandinavian Journal of Primary Health Care*, 34(2), 135-142.
DOI : 10.3109/02813432.2016. 1160627.

- [26] N. H. Do (2014). *Changes and policy implications of child panel 0-4 years of childhood growth*. Seoul :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27] A. M. Walsh, K. Hamilton, K. M. White & M. K. Hyde (2015). Use of online health information to manage children's health care : A prospective study investigating parental decisions. *BMC Health Services Research*, 15, 131.
DOI 10.1186/s12913-015-0793-4
- [28] R. Jaks, I. Baumann, S. Juvalta & J. Dratva (2019). Parental digital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in Switzerland : A cross-sectional study. *BMC Public Health*, 19, 225. DOI: 10.1186/ s12889-019-6524-8
- [29] S. H. Park & S. Y. Lee (2011). Exploring categories of health information users on the basis of illness attitude and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n the internet.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5(4), 105-133.
- [30] S. J. Kim & B. J. Choi (2012). Effects of the online brand community's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 on the brand community.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0(9), 165-174.
- [31] S. J. Chang & E. O. Im (2014). A path analysis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among older adults. *Geriatric Nursing*, 35, 137-141.
DOI : 10.106/j.gerinurse.2013.11.005
- [32] H. J. Jang & G. Y. Noh (2015). Structural model of health status in rural community: Social trust, medical communication, and health inform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8), 483-493.
DOI : 10.14400/JDC.2015.13.8.483

조 옥 희(Ok-Hee Cho)

[중학원]



- 1999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4년 2월 : 가톨릭대학교(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만성질환간호, 간호교육

· E-Mail : ohcho@kongju.ac.kr

황 경 혜(Kyung-Hye Hwang)

[중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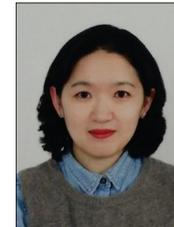


- 1990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1년 8월 : 가톨릭대학교(간호학박사)
- 2011년 8월 ~ 현재 : 수원과학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노인간호, 간호교육

· E-Mail : hkh@ssc.ac.kr

김 미 나(Mi-Na Kim)

[중학원]



- 2013년 8월 : 가톨릭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감염관리전공(간호학석사)
- 2018년 6월 : 가톨릭대학교(간호학박사과정 수료)
- 2020년 5월 ~ 현재 :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
- 관심분야 : 성인간호, 감염관리간호

· E-Mail : mina0650@hanmail.net